



06년 하반기 정책자금 700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 이현재)은 '06년 하반기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약 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투자가 부진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및 설비 투자 지원을 위한 구조개선자금(2380억원),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개발기술사업화자금(430억원), 다수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협동화자금(177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벤처창업자금(270억원), 시중은행의 무역금용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수출금융지원자금(180억원),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 개선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지금(1750)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정책자금의 45%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에 직접대출로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직접대출의 50%이상을 담보없이 신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한 실적은 3473억원이며, 이중 약 60%인 2087억원을 담보없이 순수 신용으로 지원했다.

2005년에는 선착순에 따른 정책자금 집행으로 자금이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한 바 있다.

하반기 정책자금 융자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해당지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대표전화:02-769-6700)로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2007년 정보통신 연구개발 9436억원 투입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제95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교수)를 개최하고 2007년 정보통신연구개발기본계획(안)과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결과(안)를 심의했다. 계획(안)은 정통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총 9436억원 규모의 기술개발·표준화·인력양성·연구기반조성 등 정보통신연구개발 사업의 기본방향과 자원배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총 68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기술개발 분야는 IT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신성장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정보보호·부품·소재, IT·NT·BT 융복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텔레매틱스 등 민간투자가 활발한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할 예정이다.

둘째, 321억원 규모의 표준화 분야는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중·일 표준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표준화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성과 미흡과 제의 퇴출을 위해 상대 평가제, 일몰제도도 도입된다.

셋째, 인력양성 분야는 대학 IT교육 경쟁력 강화 및 국제 공학 인증 확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구역량이 검증된 대학 IT 연구센터(ITRC) 등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총 108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넷째, 연구기반조성 분야는 u-IT 클러스터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반 조성사업 등에 총 1178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의_정보통신정책본부 정책총괄팀

(02-750-2311)